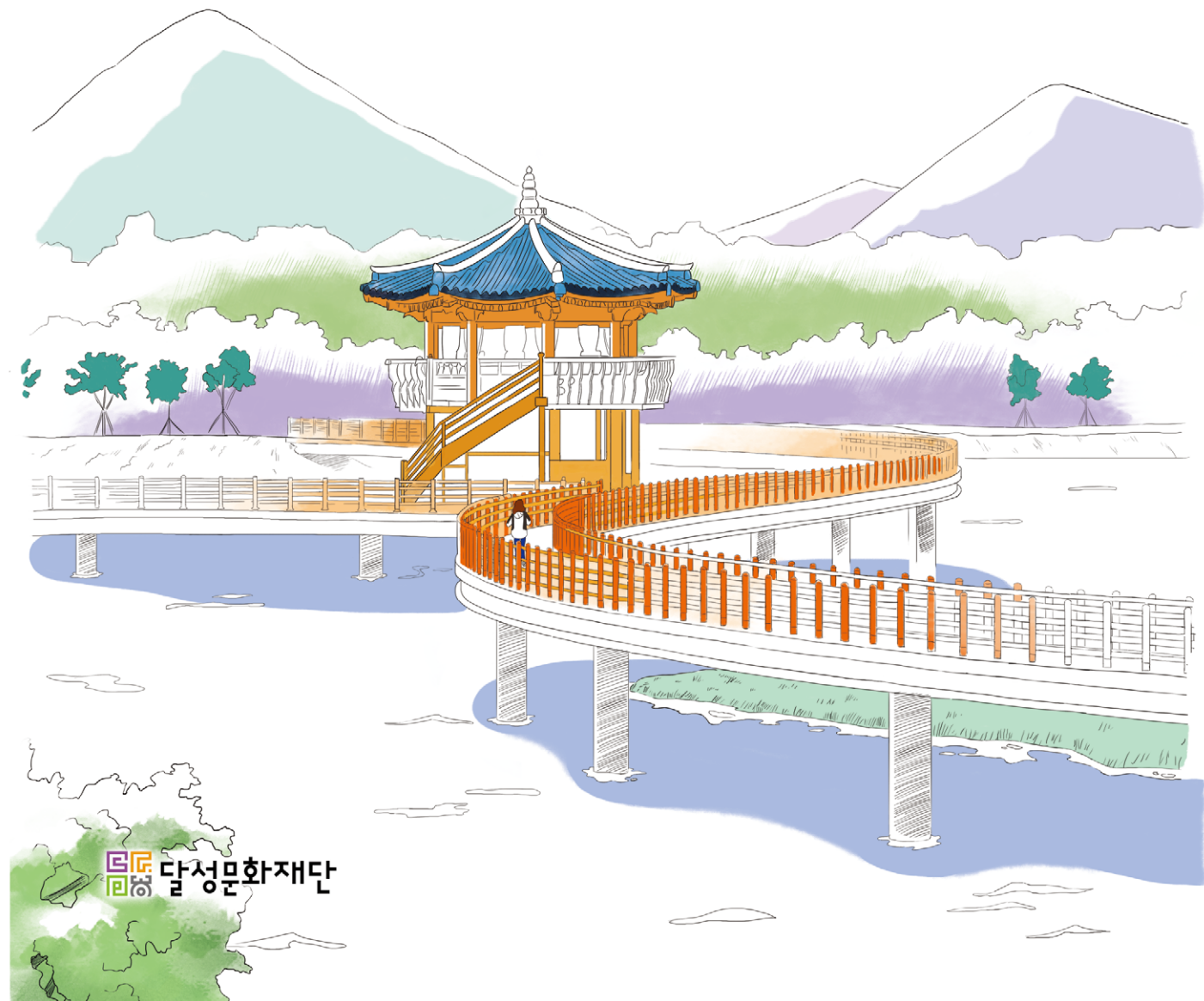


달성문화재단 계간지

꽃밭에서

2017 _ 겨울호 WINTER



전국유일

2017 성악중창 페스티벌

flower
대구의 향토 예술 꽃피다

SE 7⁺ EN ENSEMBLE

2017.12.27 |수| PM 7:30

대구오페라하우스

|출연진|

팬텀싱어2

보이처

UST Singers

벨레스텔레

맨 소울즈

로만짜

사운드 포스트



팬텀싱어2/ 권성준 송근혁 김지원 조휘



특별출연/ 강혜정



사회/ 장일범



예술감독/ 이현

주최 | 후원 | 주관 | 문의 | 053)659-4281 (www.dsart.or.kr)

전석 무료, 12월 7일(목) 부터 선착순 전화예매 053-659-4281 (1인 최대 4매 / 7세 이상)

문화책갈피

달성습지



낙동강과 금호강, 진천천과 대명천이 합류하는 지역에 자리한 총면적 2km²(약 60만5천 평)의 하천습지이다. 보기 드문 범람형 습지로 사계절 다양한 식생을 볼 수 있는 자연생태의 보고이다. 개방형 습지, 폐쇄형 습지, 수로형 습지로 구성되어 있다.

봄이면 갯꽃, 여름이면 기생초, 가을이면 억새와 갈대가 장관을 이룬다. 여름과 겨울에 각종 철새가 찾아 온다. 잡풀과 뽕나무들이 들어서기 전, 달성습지에 모래사장이 펼쳐졌던 시절 이곳은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등 철새들의 천국이었다. 지금은 백로나 왜가리 등의 철새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종으로 삶과 맹꽁이 외에 너구리, 고라니, 살모사 등이 살고 있다.

출처 : 달성군청

양파 껍질을 벗기며

껍질을 벗기면 똑같이 생긴 껍질이 딱하니 기다린다. 까면 갈수록 화수분처럼 나오는 허상 같은 관문들을 모두 지나고서야 비로소 실체를 볼 수 있다. 그게 공(空)이든 알맹이든 말이다. 매서움에 찔끔 나오는 눈물은 덤이다. 여기까지는 양파 이야기다. 그런데 어쩐지 마음 한 켠이 뜨끔하지 않나. 들어다보니 양파보다 사회적 책임을 조금 더 짚어진 인간의 이야기 같다. 이에 공감한다면 그 속을 찬찬히 그리고 낱알이 살피보아야 한다. 후퇴한 미래를 꿈꾸는 자는 없기 때문에.

노벨문학상 수상과 행동하는 지성으로 독일 사회의 양심을 상징하던 쿤터 그라스는 인생의 절정기에서 고백한다. 열일곱 살에 나치 무장친위대(SS)에 복무했었음을. 비록 그는 전범재판에서 범죄로 규정될만한 어떤 행동도 한 바 없었지만, 체제에 순응한 자로서의 책임을 벗을 수 없다는 내적동기가 그의 고백을 이끌었다. 그는 나치의 실정을 자각하지 못한, 또한 기꺼이 알고자 하지 않았던 그 시절의 몽매함을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무비판적 찬양의 시대 속에서 의심과 자기비판을 체득 못한 소년의 순진함은 이후 60여 년을 모순 속에서 꿈틀댄다. 그는 시대의 면죄부를 받을 지언정 자기검열은 피하지 못했다. 또한 문학의 거장답게 작품 『양파껍질을 벗기며』로 그 검열에 화답한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거장은 아닌 탓에 것처럼 우아하게 고백할 길은 요원하다. 그만한 용기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단단한 껍질로 무장한 자신을 한번 해체하는 것 정도는 해봄직하다.

삶의 무게는 저마다 다르고 견뎌내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껍질이 싸인 껍질 속 우리는 그저 한 인간일 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2018년이 목전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해를 녀 놓고 바라보며 새로운 계획에 몰두한다. 뒤와 옆까지 입체적으로 살피는 여유가 아쉽다. 2017년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양파껍질을 슬쩍 까보는 건 어떨까. 혹시 그 속에 보물이 있을지도 모를 일 아닌가.

문화정책실 박현주

CONTENTS

2017 WINTER Vol. 07

07 Column

사문진나루터, 대구 음악도시의 역사가 태동한 곳
_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 배선주

08 리뷰 I

100대의 피아노가 만들어낸 환상의 하모니,
2017 달성 100대 피아노 _ 김상욱

14 리뷰 II

선비정신의 물꼬, 달성에서 틔우다,
「제7회 동아시아 서원」 국제학술대회
왕건, 가까운 그대 먼 역사,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왕건, 그리고 고려시대 달성」 학술대회 _ 박현주

18 리뷰 III

창작뮤지컬 '육신사의 비밀' _ 장인규

20 리뷰 IV

달성, 음악으로 겨울을 수놓다,
제13회 달성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_ 김상욱



22 리뷰 V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드레스콘서트,
아이LOVE맘 콘서트 _ 이나영

24 특집

전국유일 2017 성악중창페스티벌
〈SE7EN+ ENSEMBLE〉 _ 최염윤

28 피플 I

달성에서 만나는 연출 거장, 정갑균 단장 _ 이현경



Page32

30 피플Ⅱ

더 풍성해질 달성의 다음 이야기, 류영철 교수 _ 박종복

32 그곳, 거기

가창 문화예술의 중심, 가창창작스튜디오 _ 이나영

34 피플Ⅲ

‘예술’, 그 아득함과 거대한 감동,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김혜경 회장 _곽원영

36 아웃사이드Ⅰ

빛고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가다 _ 최업윤

38 아웃사이드Ⅱ

든든한 뿌리, 문화시민으로부터의 시작,
오사카·교토 문화기행 _ 김상욱

40 인사이드

배롱나무와 노을에 물드는 달성(達城) 하목정(霞鶯亭)
_ 이현경

42 상징

덕을 믿으십니까, 조형물 이야기 : 사효자굴 _ 박현주

43 인문학 총서 프리뷰

달성의 나무기행 _ 이정웅

44 달성군전국사진공모전

2017 달성군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 _ 이시영

50 재단소식

달성문화재단 계간지 꽃밭에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창간사보 부문 대상’ 수상

달성문화재단 DALSEONG CULTURAL FOUNDATION

발행인 | 김문오 달성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인 | 김채한
기획/편집 | 김성수, 최업윤, 곽원영, 김상욱, 박현주, 이나영,
장인규, 이시영
발행월 | 2017년 12월
발행처 | 달성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
전 화 | 053)659-4273
팩 스 | 053)715-1289
홈페이지 | www.dsart.or.kr
디자인/제작 | 밝은사람들 053)660-6600

ISSN 2508-3740
2017년 VOL.7 비매품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Page36



Page40

Column



사문진나루터

대구 음악도시의 역사가 태동한 곳

〈제15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한창이던 11월 초, 기다리던 낭보가 날아들었다. 대구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스페인의 세비야, 이탈리아 볼로냐, 독일의 만하임과 하노버 등 세계 유명 음악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폭넓게 교류협력하며 국제무대에서 손꼽는 공연예술도시, 음악도시로 성장해나갈 우리 대구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 벅차다.

대구가 음악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입성한 데는 충분하고 타당한 배경이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콘서트하우스 같은 전문공연장에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등 수준 높은 공연예술축제가 매해 안정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국내 어느 지역보다 많은 음악전공자들이 배출되고 또 여러 방면에서 눈부시게 활약해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만 해도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시선을 한참 과거로 돌려보면 지난 6·25전쟁 무렵 대구로 피난 온 예술인들이 폐허나 다름없던 이곳에서 클래식음악 감상이며 공연이며 상당히 활발하게 펼쳐 당시 어느 외신기자는 ‘바흐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로 묘사했다는 품위 있는 스토리가 전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또 그 보다 수십 년 앞서 대한민국 근대 시기에 서양음악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곳 역시 우리 지역이다. ‘동무생각’을 작곡한 박태준, 최초의 창작오페라인 ‘춘향전’을 작곡한 현제명이 대구출신인 것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

우리나라 서양음악 유입의 상징이자 실질적 통로가 된 곳은 바로 달성군 화원을 낙동강변의 사문진나루터이다. 조선말기, 낙동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온 외국문물이 사문진나루터를 통해서 내륙으로 들어왔으며, 1900년 미국인 선교사 사이드 보텀이 바로 이 경로로 들어온 물건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였다. 피아노를 처음 본 사람들이 ‘귀신통’이라며 놀라워했다던 이 악기는 소달구지에 실려 청라언덕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사문진나루터의 피아노 유입을 기념하기 위해서 달성군과 달성문화재단은 2011년부터 해마다 달성 100대 피아노를 성대하게 열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공연문화콘텐츠가 되어서 전국 각지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달성군을 찾는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이 공연을 보기위해 달성군을 찾게 될 지도 모르겠다.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라는 타이틀이 큰 힘을 발휘할 걸로 기대된다.

이제 다시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의 미래를 그려본다. 음악의 뿌리가 깊고, 관련 자산이 풍부하며 또 차근차근 잘 성장해왔으니, 실하고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을 내일을 희망해도 성급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제 모든 시민이 세계인들과 함께 수준 높은 음악공연을 누리는 아름다운 대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 배 선 주

100대의 피아노가 만들어낸
환상의 하모니

2017 달성 100대 피아노



사문진 상설 야외공연장의 데뷔 무대

여섯 번째를 장식한 「2017 달성 100대 피아노」는 화원동산 사문진 나루터의 관광 자원에 문화의 채색 옷을 입힌 명소로서의 완성과 독보적인 피아노 축제의 연례화 된 정착성을 입증하듯 올해도 6만 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지난해부터 인정받은 축제의 명성은 2017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되고, 대구의 대표 음악축제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구광역시 문화 수준을 드높인 공로로 국·시비 2억원을 지원받으며 정유년의 피아노 향해를 시작했다.



사문진 상설 야외공연장의 데뷔 무대로 펼쳐진 「2017 달성 100대 피아노」는 10월 1일(일) 공연에서 관객들이 달성의 전설 이야기를 만들어주었다. 낮부터 이어진 우천중에도 가수 정동하의 피날레와 불꽃놀이를 마칠 때 까지 2만 여명의 관객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며 야외콘서트의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 스태프와 출연진, 타 지역에서 방문한 평가위원 및 많은 관객들까지 달성 관객의 문화적 자긍심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 개월간 연일 수고해준 공사업체 관계자와 근로자들, 촉박한 일정임에도 모든 셋업 일정을 무탈하게 소화해준 스태프들의 노고 덕분에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32.6m(한국 최초의 피아노 유입일 1900년 3월 26일을 상징)의 사문진 상설 야외공연장의 효과를 톡톡히 맛보는 데뷔 무대가 됐다.

달성 100대 피아노의 꽃, 100인 피아니스트

100인 피아니스트 공연은 2016년부터 전국 음악대학 피아노·작곡과 재학 및 졸업생으로 선발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수준도 비례하였으나 오디션 참가자가 다소 줄었다. 그러나 예술감독 금난새의 섭외로 선발기준에 대한 확대를 요청하는 전화가 계속 걸려 왔고 4~50명 정도 예상했던 오디션 참가인원은 예상을 뛰어넘어 80명이 접수했다.

사전에 섭외된 경북예술고등학교 피아노과 30명의 학생들과 오디션 합격자와 함께 100인 피아니스트를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에서 크게 변화한 내용은 예술감독 금난새가 지휘하는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었기에 촉박한 일정 속에 교향곡까지 소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달성문화센터에서 한 차례의 연습을 거친 후 9월 22일~24일 2박 3일간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서 33대의 피아노를 준비하여 3개조로 끝없는 연습을 이어갔다. 디테일한 학습을 반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실력을 자랑하며 신예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전지훈, 김기경, 최영민 3명은 사례 없이 연습 과정에 코칭 스태프로 참가하여 100인 피아니스트의 연습을 도왔고 보람을 느낀 마음을 본인의 SNS에 표현해주었다.

100인 피아니스트 운영 프로세스는 몇 년간의 노하우가 있지만 100인 피아니스트 공연의 결실은 현장에서 발휘하는 피아니스트 개개인의 참여 정신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전날 이른 아침부터 이어지는 장시간의 리허설 동안 어느 한 명 불편함에 대한 내색 없이 마치는 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공연을 빛내주는 이들이 달성 100대 피아노의 주인공임에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사실이다. 향후 축제의 영구적인 지속과 다양한 지원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100인 피아니스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이 기대된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별들의 달성 나들이

2017 달성 100대 피아노의 화두는 5년간 이어온 연출 임동창의 역할을 대체하는 유능한 예술인을 섭외하는 일과 관람 수준이 높아진 관객의 눈과 귀에 부합하는 출연진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출연한다는 소식만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던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출연과 예술감독을 맡게 된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까지, 국제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클래식 문화를 주도하는 최정상급 출연진들의 연주 이야기를 풀어볼 것이다.

첫째날, 9월 30일

첫째 날의 시작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그의 목소리 또한 친숙하지만 항상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바리톤 김동규의 공연과 사회로 다가왔다. 유럽 무대의 직접적인 경험과 클래식 프로그램 진행으로 해박한 정보를 쌓아온 바리톤 김동규의 활동 경력은 별다른 시나리오 없이도 프로그램을 흡수하도록 설명해주었다. 또한, 그의 오페라 아리아와 이태리 칸쵸네는 갖춰진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할 만한 풍부한 음색을 들려주었다.





한편, 대구지역 초청성악가로 초대된 오페라의 디바로 극 고음을 가장 무난히 소화하는 실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소프라노 마혜선이 가곡과 아리아, 바리톤 김동규와의 듀엣 무대를 장식해 주었다. 2015 달성 100대 피아노에 출연한 바 있는 남성 4인조 피아노 그룹 앙상블 클라비어는 이탈리아 로마 등 국제 연주로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게 됐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독도 소나타를 작곡하여 피아노 축제에 앙상블 요소를 첨가해 주었다. 국내 트럼펫 연주의 명불허전, 최고의 대가라 할 수 있는 국가대표 트럼페터 안희찬은 청아한 소리를 사문진 강바람에 태우며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참가하는 스텝까지 기대에 차게 한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출연 소식은, 홍보 직후 세간의 이목을 단번에 집중시켰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를 무료 공연으로 100대 피아노 공연에서 감상할 수 있음을 알고 문의해 온 사람들 모두 놀라워 했다. 2009년부터 매년 전석 매진의 행렬을 이어오는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의 바이올린 권명혜, 첼로 이윤하, 클라리넷 이진아, 플룻 유지홍 4명의 콰르텟 또한 달성을 함께 찾아주었다. 당연히 ‘일본인’을 생각하고 있던 관객들은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입니다”로 시작한 그의 한국말에 큰 박수로 화답하였고, 사회자 없이 프로그램 모두를 한국말로 해설하며 공연을 준비하는 열성에 많은 감동을 느꼈다. 첫 곡 ‘Lake Louise’부터 앵콜 ‘Lomance’까지 30분간 이어진 연주 시간에는 관객들은 잠시나마 그의 연주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숨죽여 낭만적인 선율을 경청하였으며 앵콜을 끝으로 쏟아올린 불꽃놀이로 성공적인 첫째 날의 밤을 마무리했다.

둘째날, 10월 1일

예술성을 부각하며 클래식 콘서트로 승화한 둘째 날 공연은 예술감독 금난새의 지휘 아래 100인 피아니스트와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무조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중 ‘키에프의 대문’을 오프닝으로 선택하였다. 우천으로 인해 프로그램 순서는 다소 변경 되어 100인 피아니스트,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및 협연자, 알베르토 피쑈, 가수 정동하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지 걱정하였던 100인 피아니스트는 수백회 공연을 이어온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든든한 연주로 모든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관객들의 끝없는 박수를 받았다.

피아노 협연자는 국내에서 단연 최고의 실력을 겸비한 연세대학교 교



수 피아니스트 유영욱과 피터 오브차로브(러시아)가 거현의 ‘랩소디 인 블루’를, 신에 피아니스트로 피아노뿐만 아니라 작곡으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기경·최영민이 피아노 콘체르토 옴니버스를 연주하였다. 특히, 피아노 콘체르토 옴니버스는 피아니스트 김기경이 직접 작곡했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초대형 스케일의 시범 무대를 볼 수 있었다.

수많은 오페라와 협연 및 방송으로 클래식 애호가들이 잘 알고 있는 소프라노 서활란은 ‘줄리엣의 왈츠’를 오케스트라의 협연과 최현우 재즈트리오의 감성적인 연주와 함께 ‘Over the Rainbow’를 부르며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내리게 된 비와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를 전해주었다.

이어진 공연은 이탈리아 PIANO CITY MILANO 축제에서 초청한 ‘알베르토 피쑈’의 연주였다. 리허설 시간 동안 상당한 집중력으로 연주를 이어가던 그는 본 무대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명랑한 인사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관객들 또한 국제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본 축제의 문화적 자긍심을 흡수하듯이 거리감 없이 그가 연주하는 타이틀 곡 Profondo rosso와 아리랑 변주에서 리베르 탱고로 이어지는 연주를 경청했다.

계속 내리는 비와 함께 기온은 점점 내려갔으나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웅장한 클래식 음악을 모두 감상한 관객들은 가수 정동하의 마지막 공연까지 함께해 주었다. 가수 정동하는 달성 100대 피아노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함께 국비 지원을 받는 2017년 제11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제작한 뮤지컬 ‘투란도트’의 주역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2014년에는 대구에서 개최하였던 세계물포럼의 홍보대사로 대구와의 인연이 깊은 가수이다. 첫 곡을 마친 후 행사장 끝까지 비추는 조명을 넘어서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관객들에 경탄하며 대구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감사의 표현으로 그는 비를 함께 맞으며 공연을 이어갔고 모든 관객들은 현장을 함께한 문화적 자긍심을 깊이 간직하였으며 마지막 팡파레인 불꽃놀이로 사문진에 젖은 2017 달성 100대 피아노의 밤을 마무리했다.

공연 이후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간 출연진과 스텝들은 모든 과정을 준비한 관계자 모두에게 큰 격려를 전해왔으나 무엇보다도 추운 날씨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관객들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낸다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관객들은 전년도보다 훨씬 많은 후기를 블로그와 SNS에 호평으로 남겨주었다. 그 어느 해보다 이 축제의 주인공이 관객임을 입증한 2017 달성 100대 피아노, 이제 달성 100대 피아노는 2018년과 새로운 3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며 국제적인 피아노 축제로의 발전을 향한 도약을 준비 중이다.

문화정책실 김상욱



선비정신의 물꼬,

달성에서 틔우다

「제7회 동아시아 서원」 국제학술대회

서원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공통된 문화요소이면서 인류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중요성을 공감하며 양국이 학술교류를 이어왔고,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이 의미 있는 상호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한 환당 선생의 선비정신이 깃든 도동서원의 뒤뜰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날 식전행사에서는 중국 4대 서원 중 하나인 악록서원의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동서원과 달성문화재단이 각각 악록서원과 상호협력 협약을 맺으며 문화교류의 장을 열었다.

비슬산 자락에 개장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호텔 아젤리아의 로비는 개회식이 다가오며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기만 하는 인원엔 행사를 준비한 이들의 낯빛은 참으로 오묘했다. 이만하면 호텔의 최대수용인원을 넘어서는 것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으니, 서원학술대회를 개최했던 여남은 해의 이력에 이런 인파는 없었던 모양이다. 넘치는 관심 덕에 발표자로 참석했던 한국·중국·독일 학자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 날의 주제였던 '한·중 서원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펼쳐놓기에 더할 나위 없는 열기였던 것이다.

서원과 선비는 어쩌면 '옛것'으로 치부당하기 쉬웠을 터이지만, 연구의 중심 주제로서 여전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원은 현대 집단지성의 조선시대 버전에 다를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던 선비정신, 그리고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집단지성의 지향점이 같은 맥락 속에 있다. 앎을 지식에 국한시키지 않고 현실에 반영하고자 했던 정신에서 문화적 힘을 느끼게 되는 오늘이다.





출처: 지식산업사



왕건, 가까운 그대 먼 역사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왕건, 그리고 고려시대 달성」 학술대회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나. 그렇다면 공산 동수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탈출하던 태조 왕건이 와서 쉬어간 정도의 인연은 어떨까. 왕건 학술대회를 달성에서 개최한 사연 또한 그러하다. '왕선'이라는 지명을 통해 지역민의 일상 속에 스며든 것이 그 시작점이다. 미국 LA에서 한인 사회의 가장 명망 있던 지도자를 기리기 위해 붙였다는 '도산 안창호 거리'처럼 한 사람을 기억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 중 하나가 지명이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꾸준히 이어지던 지역민의 문명이 반가웠다. 대관절 왕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려와 신라 그리고 후백제 간의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던 시절,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려와 후백제 간의 기 싸움이 팽팽했다. 그 시기 이미 유명무실했던 신라를 먼저 공격한 것은 후백제의 견훤이었다. 나당연합군에 의해 사라진 백제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신라를 금습한 견훤은 신라왕을 잡아 치우는 등 사실상 신라를 멸망 직전으로 몰고 갔다. 통일을 준비하며 신라와 화친하던 왕건은 이를 응징한다는 대의로 직접 출전한다. 이렇게 역사의 두 주인공이 맞닥뜨린 곳이 공산 동수다. 견훤의 계산 하에 준비된 전투였으므로 여러모로 왕건에게는 불리했다. 자신이 아끼던 개국공신의 기지로 겨우 목숨을 건진 왕건은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탈출한다. 대구지역에 남겨진 수많은 지명들이 그 지난한 과정을 짐작케 한다. 그만큼이나 왕건은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 까마득한 1,000여 년 전의 행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왕건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진다.

문화정책실 박현주



2017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개발프로그램 공모 선정작

창작뮤지컬

육신사의 비밀

달성문화재단이 제작한 창작뮤지컬 '육신사의 비밀'이 펼쳐졌던 지난 11월 24일(금)과 25일(토) 양일 동안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공연 시작 전부터 백년홀 로비에는 공연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토요일 공연에는 보조석까지 가득 메울 만큼 많은 관객들이 함께했는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공연을 관람하러 온 가족 단위 관객들을 비롯, 초등학교생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감동과 재미를 더한 창작뮤지컬 '육신사의 비밀'과 함께 했다.

이 공연은 달성군 하빈면에 위치한 육신사에 사육신(박팽년, 성삼문, 유응부, 하위지, 유성원, 이개)의 위패를 모시게 된 역사적 배경에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해 스토리를 재구성하여 탄생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가락의 쉽고 흥겨운 리듬을 반영한 음악과 화려한 연출구성으로, 공연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번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열렬한 갈채 속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창작뮤지컬 '육신사의 비밀'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색다른 관점과 창의적인 스토리로 재구성해 '과거 위대한 석학들이 죽어 귀신이 되면 어떻게? 위패를 모실 수 있는 후손이 없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돌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 위에서 사육신들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그들은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다 수양대군에게 참형 당한 그날을 회상하며, 영화 '관상'의 한 장면인 수양대군 이정재의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명대사와 함께 관객들의 웃음과 공감대를 자아내기도 했다. 홀로 사당에 위패가 모셔진 박팽년은 사육신들에게 자신의 위패가 있는 사당을 안내해주자 신이 난 사육신들의 익살스러운 모습과 제삿밥 내기 등 배우들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호응하는 객석의 웃음소리는 공연의 활기를 북돋았다. 그리고 신과 인간의 맺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기로 육신사를 지키는 산신(배우 최민준)과 어린 낭자(배우 손아영)의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 또한 공연의 중요 관람 포인트로 '생각나는 사람', '함께 라면' 등의 아름다운 듀엣곡과 두 배우의 환상적인 호흡은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사랑하는 여인과 인간을 사랑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산신의 모습에 몇몇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대극장에서 볼 수 있는 스펙터클한 무대장치의 화려함 보다 육신사의 역사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흥미롭게 전달하고자 했던 기획의도가 관람객들의 마음에도 전달되었기를 바란다. 창작뮤지컬 '육신사의 비밀'을 통해 육신사와 사육신의 역사를 이해하는 한편, 육신사를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이번 뮤지컬이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문화정책실 장인규

달성, 음악으로 겨울을 수놓다

제13회 달성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지난 11월 21일(화) 제13회 달성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꽃 피는 달성을 부르는 가을 노래의 향연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정기연주회는 어느 때 보다 많은 관람객이 달성군청 대강당과 로비를 가득 메웠다. 달성의 주제곡 사문진나루터를 시작으로 진달래꽃, 들국화, 벚꽃엔딩 등 꽃노래로 수놓으며 행복 1등 도시를 꽃피운 달성의 변혁을 가을 노래의 선율로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선곡이 국내 최고의 반열에 올라있는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하며 성숙함을 느낄 수 있는 합창단의 변화된 음색을 들을 수 있었고, 지역의 대표적인 작곡가들 또한 여성합창의 묘미를 살리고자 편곡에 참여하였다. 각 스테이지의 음악적인 연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드럼, 베이스, 해금, 플루트, 멜로디언 등 다양한 악기와 현대무용 및 보컬까지 다양한 예술인이 출연하였다.

또한 특별출연에는 가곡부터 오라토리아, 오페라 등 솔리스트의 독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지휘 분야까지 섭렵한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인 테너 한용희를 초청하여 이태리 민요와 한국 민요의 조화를 감상하였고, 영남대 음악대학 관현악과 동문으로 구성된 Bravo Brass Quintet의 수준 높은 금관 5중주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단원모집 문의**
053-715-1292

이러한 달성군립합창단의 발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대구광역시 구·군합창단연합회의 7개 구·군 합창단 단장 및 지휘자로부터 매년 성장하는 달성군립합창단의 실력과 달성군청의 적극적인 지원에 부러움과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2017년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대구음악협회에서 주최한 '신춘음악회'를 시작으로 제21회 비슬산 참꽃문화제 개막축하공연, 달성군민체육대회 축하공연 등 한 해의 일정을 쉼 없이 달려온 달성군립합창단은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진 뒤 12월 11일(월) 오후 7시 30분 남구 대덕문화전당에서 대구광역시 구·군합창단연합회 연합합창제 무대에 오른다.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신규 임원진을 선발하고 2018 무술년에는 신규 합창단원을 맞이하여 25만 군민의 문화의 선봉장으로서 역동적인 출발을 시작하고자 한다. 또한 새해에는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출전하여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자 한다.

문화정책실 김상욱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드레스콘서트

현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은 예전에 비해 '여성'이라는 젠더적 개념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동일선상에서 중요시되는 역할이 바로 '엄마'라는 이름의 여성이다. 엄마는 치유와 고향 그리고 따뜻함이라는 단어들이 연상되는 조건 없는 보호자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정작 '엄마'로 역할 지어진 당사자인 여성의 삶은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다. 이들도 엄마이기 전에 여자였고, 여자이기 전에 누군가의 자식이었다. 엄마의 이미지는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통념이 일반적이나, 인간의 사회화 과정 속에서 타자에 의해 가장 효율적이고 알맞은 역할로 규정지어져 왔다는 일면도 현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낯선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설사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 역할극의 끝을 선포하는 '엄마'는 극히 드물 것이란 것이 아이러니이다.

지난 10월 25일, 26일 양일간 달성문화센터에서는 아이와 엄마를 대상으로 한 '아이LOVE맘 콘서트'가 열렸다.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면, 엄마들의 삶에 자그마한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달성문화재단에서는 <아이LOVE맘 콘서트>를 기획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소소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본 공연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프로그램> 공모 선정 사업으로, 지난 5월에 한차례 진행된 '드레스콘서트'는 오로지 여성을 위한 콘서트였다면, 이번에는 부제를 붙여 '아이LOVE맘 콘서트'를 기획해 엄마와 아이를 위한 공연으로 꾸며보았다.

이번 무대의 진행은 영남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태리 씨에나 리날도프란치 국립음악원을 수석 졸업한 바리톤 노희섭이 맡아 수준높은 노래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관객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그려주었다. 이에 더해, 독일 시립 음악대학 지휘과를 최우수로 졸업한 지휘자 겸 바이올리니스트 김범수의 지휘하에 CM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와 소프라노 류지은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공연장을 가득 매워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보다는 가족을 위해 분주한 엄마들의 일과는 어느새 이웃집의 이름 모를 누군가와 다를 바 없는 시간표 속을 맴돌고 있다. 이번 콘서트의 레퍼토리는 이러한 엄마들의 하루를 소재로 꾸며져, 아침 '기상' 직후 시작되는 '분주함' 그리고 이어지는 '휴식시간-커피타임', '집안정리', '점심식사' 등에 걸맞은 음악을 선곡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엄마들은 갈등하고 고민하면서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틈 없이 세월은 흐르고, 어느덧 여유가 생길 때쯤에서야 제2의 사춘기 마냥 본인의 삶에 대해 깊은 고민에 잠기게 된다. 엄마들의 심리와 하루 일과를 담담히 읊어준 이번 콘서트의 곡들은 음악을 통해 치유와 감동을 전하는 시간을 선사해 관객들의 따뜻한 호응을 얻으며 막을 내렸다.

문화정책실 이나영



전국유일

2017 성악중창 페스티벌

SE7+ ENSEMBLE



팬텀싱어2/ 권성준 송근혁 김지원 조휘



특별출연/ 강혜정



사회/ 장일범



예술감독/ 이 현



달성문화재단은 오는 12월 27일(수) 저녁 7시 30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전국유일 2017 성악 중창 페스티벌' (SE7EN+ ENSEMBLE)을 개최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게 된 '성악중창페스티벌'은 대구지역을 비롯한 국내외의 수준 높은 성악중창단을 발굴 및 소개하고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무대를 선보임으로 클래식 음악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축제로 매해 달성문화재단의 송년 프로그램으로 기획되고 있다.

올해는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비영리법인 한국오페라콘텐츠진흥원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 현 교수가 예술 감독을 맡았다. 이탈리아는 물론 헝가리, 독일, 터키, 러시아, 일본, 미국 및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국내외 무대에서 수백 회 오페라 주역을 맡은 이 현 예술 감독은 언제나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MBC대학가 요제 금상이라는 독특한 이력과 금복문화상 수상 및 중앙일보 문화인물 '새뚝이'로 선정되기도 한 그는 오페라를 연극과 접목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요리와 음악을 접목한 '만자레 칸타레 아모레'라는 쿠킹 콘서트를 브랜드화하는 작업을 하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1	2	4	5
	3		

1. UST Singers
2. 로만짜
3. 보이쳐
4. 맨소울즈
5. 벨레스텔레

한편 국내의 오페라 연출가 중 뛰어난 감성 연출로 정평이 난 정갑균 교수가 2017 성악중창 페스티벌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킬 예정이고 해박한 지식과 쉽고 재미있는 진행으로 이름난 대한민국 대표 음악평론가이자 해설가 장일범이 사회를 맡았다. 올해 성악중창 페스티벌은 <SE7EN+ ENSEMBLE>로 대구지역 3팀, 타지역 3팀, 해외 1팀, 그리고 특별출연 소프라노 강혜정까지 총 8팀이다. 대구지역에서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젊은 층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영 아티스트 그룹 '사운드 포스트'의 공연 및 세 명의 남성 테너로 구성된 '로만짜'와 13인의 여성 성악가로 구성된 '벨레스텔레'가 솔리스트앙상블을 선사하고, 타 지역 국내 팀은 크로스 오버로 방송가를 강타한 '팬텀싱어2(권성준, 송근혁, 김지원, 조휘)'와 어쿠스틱 앙상블의 최고봉 '보이쳐', 컨템퍼러리 보컬 앙상블팀인 남성4인조 '맨소울즈'가 함께한다. 또한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합창 강국인 필리핀을 대표하고 올해 유럽 중창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합창단, 상토 토마스 대학 합창단(UST Singers)으로 20명의 혼성 중창단이 아름다운 음악 여정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특별출연으로 2005년 미국 뉴욕 마이클 시스카 오페라 어워드(The Michael Sisca Opera Award)를 수상하며 오페라 마술피리의 파미나 역으로 데뷔한 실력파, 소프라노 강혜정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국내외 다수의 오페라 무대에 주역으로 출연하며 제 3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과 2014년 서울 석세스 어워드 문화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그녀는 뉴욕타임즈로부터 '다채롭지만 유연한, 너무나 달콤한 소프라노'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프랑스어 앙상블(ENSEMBLE)은 조화, 화합을 의미한다. 이번 2017 성악중창 페스티벌의 이 현 예술 감독은 "음악의 가장 기본은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 특히 중창에 관심을 갖는 달성군의 예술적 안목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앙상블은 화합이죠. 화합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더불어 가고자 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 화합된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의 테마를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로 정했습니다. 이 페스티벌을 통해 새로운 작품, 새로운 팀들이 계속 소개되고 이를 통해 보컬 앙상블 팀들이 단순히 여흥을 위한 성악적인 발성뿐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의 색깔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바람을 전했다.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따뜻한 송년음악회, 한 해의 아쉬움과 새해의 희망을 담아 공연 그 이상의 감동을 전하는 2017 성악 중창페스티벌 <SE7EN+ ENSEMBLE>은 관객들에게 함께하는 즐거움, 조화가 주는 아름다움의 선물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문화정책실 최염운

SE7⁺EN
ENSEMBLE

달성에서 만나는 연출 거장

정갑균 단장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의 연말 대표 음악공연
‘2017 성악중창페스티벌
SE7EN+ ENSEMBLE’의
정갑균 단장을 만났다.

귀한 인연을 따라

정갑균 단장은 ‘푸치니’, ‘나비부인’ 등 수많은 오페라 작품을 연출하고 국립창극단 상임연출가를 역임했다. 지난 2005년 동양인 최초로 세계 3대 오페라 페스티벌인 이탈리아 ‘토레 델 라고(Torre del Lago) 푸치니 페스티벌’에 초청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세계 속의 연출가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광주시립오페라단 초대 예술감독인 그는 “대구를 사랑합니다.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등극해서 너무 기쁘네요. 대구는 제가 지난 15년 동안 1년에 1~2작품을 꾸준히 연출했던 도시입니다.”라며 “특히 대구시립오페라단 작품을 5년 동안 했고, 창단 20주년 공연도 연출했지요. 오페라축제 때도 개막작, 폐막작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렇듯 대구를 사랑한다는 그의 달성군 문화계와의 인연이 궁금했다. “달성군이 아주 야심차게 문화재단을 출범시키고, 눈부실 정도로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환경과 역량이 남다른 곳이지요. 특히 피아노가 국내 최초로 유입된 곳입니다. 달성군에서 작품 의뢰가 왔을 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귀한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리듬과 템포의 조율

연출에서 그만의 독특한 색채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정 단장. 그에게 2017년 성악중창페스티벌의 연출방향에 대해 물었더니 “중창은 무대 위에 한 명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중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메소드를 찾아서 전달할 겁니다.”라며 “‘100대 피아노 콘서트’와 비슷한 맥락이지요. 1대가 아니라 100대, 그런 부분에서 중창과 비슷합니다.” 그의 말이 빨라진다. “공연의 처음부터 끝까지에는 ‘보이지 않는’ 리듬과 템포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상승해야 하고 어떤 때는 하강해야 하지요. 그것을 절묘하게 묶어줄 수 있는 연출가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달성에 예술의 옷을 입혀

다양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활발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달성군에 대해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달성군은 대구에서 가장 전통과 유서가 깊다고 봅니다. 중구가 대구 근현대사를 통해 관광산업을 연계했다면, 달성군은 대구가 갖고 있는 ‘예술’과 접목해서 펼치면 좋지 않을까요. 예술상품으로, 특히 공연예술로 승화시키면 좋겠지요. 달성군이 갖고 있는 차별적 소재를 발굴해서 ‘예술’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이것이 달성문화재단이 달성문화에 앞장 서 있는 이유입니다.”

대구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부탁했더니 “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술적인 모든 부분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거기의 주권자는 ‘시민’이지요.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면 ‘검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연을 찾아주시고 거기서 감동을 가져가야 투자한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함께 호응하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누가 그에게 묻는다. “뭐하시는 분입니까?” 그는 ‘화가’라고 대답한다. “어떤 그림을 그리니까?”라고 물으면 “큰 그림을 그립니다. 가로 20m에 높이 10m, 깊이 20m 공간을 통해 그림을 그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그림을?” “무대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연출가입니다. 살아있는 그림을 2시간 동안 그리지요. 1초가 지나면 무대 그림이 바뀌어 있습니다.” 올 연말, 달성에서 그리는 그의 ‘그림’이 기대된다.

글_이현경

더 풍성해질 달성의 다음 이야기

류영철 교수

달성 문화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달성 고문헌(고유물) 수집사업’ 추천위원 류영철 교수를 만났다. 그가 말하는 ‘문화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자.

군지와 인연

대구에서 태어난 류영철 교수는 영남대학교에서 국사학을 전공하고 1998년 한국중세사 분야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대 말부터 여러 대학에서 한국사 관련 강의를 하고, 영남대 강의교수와 대구시사, 경상도칠백년사 집필위원, 달성군지 집필위원장, 달성문화재단 이사 등을 맡아왔다. 그가 처음 달성문화재단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달성군지’ 발간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언론계에 있었던 친구의 소개로 재단 대표님을 만나 ‘달성군지’ 발간사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군지 발간 후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지요.”

달성군의 ‘달성 고문헌(고유물) 수집사업’과 류 교수가 맡은 ‘추천위원’의 역할이 궁금했다. “많은 고문서나 문집, 전적 등이 인수문고처럼 특정 문중이나 향교, 서원 등에서 잘 관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해당 자료를 정리해 군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저는 발견된 달성군 관련 자료를 군 측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이루만지는 마음

“문화재 가치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주목되는 문화재는 ‘도동서원’입니다.” 그는 도동서원이 내년 초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앞두고 있다며 2년 후 달성군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동방 5현의 수현인 한훤당 선생부터 서원의 경관과 건축구조까지 도동서원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요.” 류 교수는 도시화되어가는 달성군, 그리고 이런 변화 가운데 전통문화를 지키려 고민하는 달성의 모습에 놀라워했다. “달성군은 군지와 달성향토문화대전을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양상을 조망하고, 대건사 중창복원과 도동서원 사액 재현행사를 통해 활자로만 전해지던 지난 역사의 가치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달성 100대 피아노와 강정 대구현대미술제는 미래적 문화 가치의 생성일 것입니다. 또한 그 여백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달성 인문학총서가 메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즐기는 힘

류 교수가 반한 달성의 문화 콘텐츠는 무엇일까. “약간의 고민이 되는데요, ‘달성 100대 피아노’를 택하겠습니다. 사문진은 당시 낙동강을 통한 소통문화의 상징이었지요. 달성 100대 피아노는 사문진의 기능과 의미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눈으로 드러나는 문화만이 아닌 문화를 형성하게 만든 토양의 구축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비슬산에 99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지금은 몇 개의 사찰 외에 대부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조하면 비슬산이 들려줄 이야기가 더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성군은 다양한 분야의 인재풀이 있다. 지역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풀어나가는 전문적인 요소가 모여 비로소 온 전역에 하나의 문화로 번져간다. 류 교수는 앞으로 달성문화와의 동행 계획을 말하며, 문화 군민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달성군의 협조로 훌륭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대 문제에 ‘가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성군은 늘 군민과 함께 즐길 준비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문화를 스스로 찾아 즐기는 무술년 한 해 되길 바라며, 모두가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_박종복



최근 아티스트 레지던스는 예술 현장에서 낯설지 않은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했다. 일견, 레지던스라는 타이틀은 단지 '머무는 공간'이라는 단편적인 의미로 읽어 낼 여지가 많지만 아티스트 레지던스의 기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생활문화 속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종의 문화예술 중개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폐교를 활용한 아티스트 레지던스의 시작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서울 및 거점 도시로 인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 그에 따른 시골지역의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폐교를 방치하기 보단 일 반에 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에 편승한 것이 바로 예술가들이다. 도심과 떨어진 위치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싼 가격에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작가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폐교를 활용한 레지던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이 국가 차원에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일종의 문화시설로서 정체성의 기틀을 다져가게 된다. 나아가 예술창작 공간이라는 범주에 한정되지 않고 입주 작가들의 아이디어와 기획자의 개입으로, 예술창작을 넘어선 예술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문화기획의 다양한 선례를 도출해 냈다. 또한 소외지역 주민들과의 예술 협업과 작가 네트워킹 구축 등 그 나름의 독자적 기능을 확보하며 지금의 예술 현장에서 가법치 않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폐교를 활용한 레지던스가 바로 달성군 가창면에 자리잡은 '가창창작스튜디오'다. 2007년에 설립된 이곳은 대구현대미술가협회에서 가창초교 우록분교를 창작스튜디오로 개조해 개관하

가창 문화예술의 중심

가창창작스튜디오

였으나 2012년부터는 대구문화재단 주최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대구광역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구시 교육청의 후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가창창작스튜디오는 대구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청년예술가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타 레지던스와 달리 만 40세 이하 젊은 작가가 입주 대상이 된다. 이곳의 인큐베이팅 시스템 역시 청년작가 육성에 걸맞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는데, 작가와 평론가 매칭, 개인전 및 단체전 등의 전시 진행, 입주작가 좌담회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들의 역량을 한층 더 성장시키고 다양한 교류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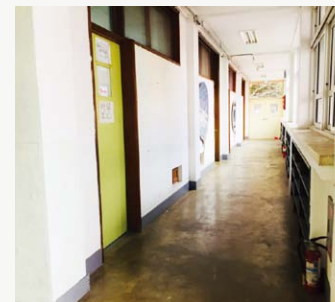
이 젊은 작가들의 활력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교류에서도 좋은 영향을 전하고 있다. 입주 작가들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삼산리 지역 주민들과의 정기적 교류 행사는 문화 소외지역 사람들의 예술 향유에 관한 인식 조성과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작가들에게도 창작의 소재를 발견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있다.

변화와 상생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가창창작스튜디오를 찾은 청년작가는 국내 110여 명, 해외 28명으로 10년간 140여 명의 작가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가창면 삼산리는 대구 시에서도 변방에 위치해 예술가와 특별한 연이 없는 평범한 시골마을이었으나, 이 스튜디오의 오픈을 계기로 지금 이곳에도 문화예술의 순풍이 마을 곳곳을 누빈다. 이제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에게도 현재의 예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낯선 일이 아니며, 이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과 전시를 관람코자 일반 시민들도 삼산리를 심심치 않게 찾고 있다. 이곳은 어느덧 문화예술의 향기가 서려있는 마을로 탈바꿈했으며, 폐교를 활용한 아티스트 레지던스가 소외 지역의 문화 부흥에도 일조 하고 있다는 긍정적 선례의 한 페이지로 기록됐다.

이렇게 가창창작스튜디오는 지역에 문화예술의 색을 입히는 비전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시키고 있다. 지역과 지역 사이의 네트워킹을 구축해 타지역 작가 및 기획자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작가 인큐베이팅에 열일 중인 부분도 이를 반증한다. 일례로 중국 절강홍예영시문화유한공사(홍예문화)와 MOU를 체결해 작가 파견 및 작가 초대를 비롯,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을 통한 광주문화재단의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및 타지역 레지던스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한 작가들의 경험과 교류를 다지는 기획은 이들의 역량 발전과 지역예술 부흥에 큰 몫을 더한다. 아티스트 레지던스의 기본인 '예술 창작 공간'이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그 여파로 파생하는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을 놓치지 않는 가창창작스튜디오, 현대미술의 산실로 열일 중인 이곳은 예술가와 마을사람들 그리고 시민들로 매일 즐거운 예술의 향기가 울려 퍼지고 있다.

문화정책실 이나영



‘예술’, 그 아득함과 거대한 감동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김혜경 회장

올해 4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의 수장을 맡게 된 김혜경 회장을 만났다.
그가 경험하고 지향해가는 ‘일상 속 문화’를 엿보았다.



1.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유관기관인 한문연 상임부회장을 맡은 후, 올해 4월 회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하고도 의욕이 넘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술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예술가로, 경영인으로, 교육자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현재 한문연에서 펼치는 공연·전시, 아카데미·교육·연수, 연구·조사·컨설팅, 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을 위해 필연적으로 걸어야 했던 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 대구 문화계와 맺어온 특별한 인연에 대해 말씀 하신다면...

대구에는 저의 학창 시절과 전문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 곳입니다. 1999년 경북 최초 오페라단을 창단하여 15년 세월 동안 대구·경북의 오페라 성장을 이끌었고, 3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대구성악협회에서 2007년부터 9년 동안 열정을 쏟으며 대구 성악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3.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개 지회(호남·제주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합동 심포지엄에서는 ‘문예회관이 생활문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한문연이 가지는 생활문화에 대한 입장과 접근 방향이라면...

예술은 어디에나 있거나, 어디에도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을 일상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관 지을 수 있지요. 어쩌다 비싼 공연을 한 번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해야 예술이 삶에 녹아들게 됩니다. 한문연은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문화예술교육축제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문예회관이 지역민의 일상을 예술적 삶으로 이끄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4. 달성군은 다양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활발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관점으로 보는 달성군 문화 사업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예회관 활성화라는 큰 목표는 같다고 할지라도 세부 전략과 사업 설계는 개별 문예회관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달성군은 역사적 사실과 전국구 명소 등 문화예술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크며, 이미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달성만의 특색 있는 문화적 토양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보다 풍성한 결실을 내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함께 씨를 뿌리고 가꾸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역민의 문화향유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이야기와 지향하는 가치를 녹여낸 콘텐츠, 그리고 소통 방식으로 다가가는 달성군의 미래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 한문연의 수장으로서 대구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요?

대구는 문화예술 도시로 알려져 있고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된 만큼 문화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어느 도시보다도 풍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활인이 아닌 예술인으로서의 자아도 있습니다. 프로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의 예술인을 잘 끄집어내어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면 현실의 피로감을 해소시키는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문예회관을 좀 더 자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한문연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문화예술을 가까이 즐기고 배우며 감동받는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6. 끝으로 임기 내 이루고 싶은 한문연의 목표 또는 비전이 있다면...

앞으로도 한문연은 ‘일상 속 문예회관, 행복한 문화감동, 함께하는 한문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문예회관으로 지원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직 한문연의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지 않은 문예회관들이 있는데요, 해당 지역을 발로 뛰어 지자체 장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한문연의 긍정적 역할과 다양한 사업들을 인지도시키고 가입을 권유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장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와 애정은 각 지역민이 문화 수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한문연은 지난해 창립 20주년, 올해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10주년을 맞이하며 도약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업과 임직원들의 열정 모두 확장세에 있는 한문연과 전국 문예회관이 상생 성장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 객원영

김혜경 회장 주요 경력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창원문화재단 대표
대구성악협회 회장 / 경북오페라단 단장





빛고을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가다

지난 11월 6일과 7일 양일간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이하 한문연) 호남·제주지회의 주관으로 호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세 지회 합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의 첫 날은 생활 문화 확산에 따른 공공문화기관의 역할과 새 정부 공연예술정책에 대한 심포지엄 및 강연, 그리고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고 둘째 날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견학 프로그램이었다.

첫 날 심포지엄에서는 '문화기관이 생활문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과거 전문공연장으로서 기능하던 문화예술기관이 국정과제인 생활문화 활성화의 방침으로 현재는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기능이 대두되어 그에 맞는 문화예술센터의 접근방법, 문화원 또는 문화의 집 등과의 차이점에 대한 발제(정민룡, 광주 북구 문화의 집 관장) 및 토론(민인철, 광주전남연구원, 서승우, 영화의 전당 공연사업팀장)이 이어졌다. 그리고 내년 3월이면 발표 될 새 정부의 공연예술정책 주요 방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원 공연전통예술과장의 강의를 이어졌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 아

래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및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 창작권 보장'에 대한 몇 가지 정책들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둘째 날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전당 내·외부를 견학했다. 방문자센터에서 민주평화교류원을 시작으로 어린이문화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에 이르기까지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된 견학은 방대하고 풍성한 ACC를 둘러보기에 부족한 시간이었다. 2005년 건축가 우규승 '빛의 숲'이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국제건축설계공모에 당선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이 품고 있는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하여 세계에 알리고자 2015년 개관한 ACC는 국내 유일의 아시아특화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적 역량을 육성하며, 문화를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窓'이다. ACC의 주요 기능은 아시아 국가 간 교류·협력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동시대 아시아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 수집, 보존 활동을 한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연구와 실험 중심의 창작 플랫폼으로서 ACC는 예술가, 디자이너, 학자, 연구자, 엔지니어 등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창조적 인재들의 레지던시 공간이며 ACT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통해 국제무대에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공연, 전시, 아시아 문화기반의 창의예술 교육 및 창의 인재 양성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를 위해서도 연중 다양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예술기획을 구르게 하는 두 바퀴는 전문성을 띤 우수한 문화예술콘텐츠와 생활문화, 또는 일상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기와 같은 문화의 보편성일 것이다.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서승우 영화의 전당 공연사업팀장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지구 'EARTH'에서 'E'와 'H'를 빼면 가운데 남는 건 'ART', 즉, 예술이라는 말. 예술의 지향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함께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

문화정책실 최임윤

든든한 뿌리, 문화시민 으로부터의 시작



오사카 · 교토 문화기행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인정하기는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다. 국민 스포츠 축구와 야구의 일본과의 실력 비교다. 시대에 따라 전적은 우세할지 몰라도 승부의 당사자인 국가대표들은 이길 수는 있으나 따라갈 수 없는 일본의 평균전력과 육성시스템을 두고 '강하다'라는 표현을 쓴다. 전 국가대표 출신 해설가는 한국 축구에 대하여 비판 할 때 일본 시스템과 실력의 우수성을 놓고 비교를 했지만, 일본이 다른 국가에 지게 되자 너무나 기쁜(?) 해설을 한 나머지 칭찬 섞인 편파 해설 해프닝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문화 또한 한류 K문화로 세계 음악시장에 주력하고 있다면 일본은 문화 전체에 대해 '강국'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 연예인들과 음악분야의 예술인들이 일본을 앞선 것은 오래된 일이고 신규 정책과 조직, 기반 시설 또한 뒤처지지 않는다. 하지만, 메이지유신부터 시작된 서구 문화에 대한 답습과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의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하여 국가 주도로 문화를 진흥시킨 흔적은 많은 생활 문화를 낳았고 시민 축제와 조직 관리의 우수성은 여러 학문에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이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대구·경북지회 일본연수는 각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의 기획·홍보·무대·음향·조명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하여 오사카와 교토에서 일본의 공연·전시와 관람 문화를 체득하는 시간이었다. 각 문예회관의 주전 투수들인지라 기본적인 일본의 문화 수준은 습득하고 있었지만, 관광 중심이 아닌 전문 공연과 문화시설 관람은 처음인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여러 일정 중에서 공연 관람에 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다카라즈카 극단의 '혁명가' 공연을 위해 호고현 전용 극장을 방문하였다. 일본 뮤지컬 시장은 3위의 다카라즈카 극단을 제외하면 극단 시키와 토호가 1·2위로 6,000억 원대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1919년 창단한 여성극단으로 소속 배우 전원 미혼 여성이고 물론 의상·배역·발성까지 남성 역할을 소화하고 뮤지컬 반주는 MR이 아닌 전속 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를 하였다. 가장 놀란 점은 관객들이 오후 3시 유료 공연의 2,550객석을 공연 시작 전부터 메우고 있었고, 다소 지루할만한 3시간의 공연 시간 내내 관객은 단 한 사람도 휴대폰 사용이나 불필요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찾은 공연은 오사카의 더 심포니 홀에서 열리는 히

로시마 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였다. 더 심포니 홀은 1,704석의 규모로 오케스트라 공연에 가장 적합한 울림을 찾아 객석 수를 정할 만큼 음향에 강점을 가진 공연장이었다. 지휘는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지휘자이자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객원 지휘로 국내에 이름을 알린 한누 린트와 이달 초에 수성아트피아에서 최초로 내한공연을 가진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의 피아노 협주곡 공연이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일본 클래식 공연장에서는 휴대폰은 반드시 전원을 꺼주는 것이 관례라고 한 가이드의 조언이 생각나 전원을 끄려고 휴대폰을 드는 순간 공연장 내부에 통신을 차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치밀한 에티켓을 느꼈다. 80명이나 되는 히로시마 시향의 장엄한 음악을 듣는 모든 시간이 여태껏 보아온 수 백 번의 음악회보다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 연수 모든 일정 중 가장 놀랐던 점은 관객들이 일체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 악장이 끝나고 지휘자와 단원들이 잠깐 숨을 고를 때 아주 조심스럽게 관객들은 목을 가다듬고 다시 집중하는 자세를 갖추었다. 마치 야구에서 투수가 와인드업을 하면 내·외야수들은 수비 시프트를 하듯이 관람이 아닌 관객으로서 연주에 참여 하는 모습을 공연 내내 보았다. 물론 객석은 만석이었다.

기획, 홍보, 마케팅, 운영, 시설 등 다양한 직무분야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이론으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 많은 학문이 등장하여 종사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는 결론은 기승전 '관객'이다. 영양분이 넘치는 토양에 든든한 뿌리로 자리한 일본시민의 관람 문화는 향후 이어진 교토 국립박물관과 여러 미술관에서도 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달성군에도 이제 문화예술회관 착공을 시작할 날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많은 문화 사업을 통해 고정 관객을 넘어 여유 관객까지 확보되어있고, 대구의 뿌리 달성의 문화군민들은 현재 어느 지역보다 문화적 자긍심이라는 든든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 문화예술회관으로 꽃피우는 달성을 기대해본다.

문화정책실 김상욱



배롱나무와 노을에 물드는 달성 達城 하목정 霞鶯亭

대구에서 성주 쪽으로 가다가 성주대교를 건너기 직전 오른쪽으로 접어든다. 길가엔 대형 음식점들이 넓은 주차장을 열어놓고 객을 기다린다. 초겨울 강변 마을은 스산하다. 그 마을 끝자락 대숲이 흔들리는 산 아래서 400년 넘도록 비바람 견뎌온 정자다.

하목정. 곳곳하고 맑았다.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6호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이종문이 선조 37년(1604)에 세웠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골기와집이다. 그의 맏아들 지영이 인조의 명을 받아 부연(처마 서까래의 끝에 덧없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을 달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인조가 왕손인 능양군 시절에 이곳 하목정을 지나다가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이 집에서 하루를 묵었다. 그 뒤 임금 자리에 오른 인조가 궁에 든 지영을 알아봤다. “너의 집 하목정은 주위 풍광이 가히 절색인데 부연을 달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나? 그러럼 빼어난 정자는 지붕을 고치고 부연을 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며 은 200냥을 하사했다. 뿐만 아니라 ‘하목당(霞鶯堂)’이라는 당호까지



내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하목정은 조선의 내로라는 시인묵객들이 찾아드는 명소가 됐다. 정자에는 현종 때 문인 정두경과 남용익, 이덕형 등의 시판 14개가 지금도 대청마루에 빛바랜 채 걸려 있다.

정자 마루에 오르면 서쪽 들창문 속으로 멀리 낙동강이 흐른다. 그 옛날, 그는 왜 이곳에다 터를 잡았을까 이해가 간다. 그 강을 끼고 열린 자전거 도로에는 줄 지은 은륜의 무리도 반짝이며 흐른다. 정자 뒤뜰에는 여름날 붉게 타던 꽃과 잎을 벗은 배롱나무 나뭇이 하늘을 덮고 있다.

이종문은 임진왜란 때 서사원, 손처눌 등과 함께 의병을 모아서 왜적과 싸웠다. 정유재란 때는 객재우 장군과 화왕산성을 지켜 벼슬을 얻었다. 이후 만년에 이곳에 하목정을 짓고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이종문의 두 아들 가운데 맏이 지영은 정구와 서사원, 장현광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지영의 묘갈명에는 ‘지영은 광해군 시절에 어두운 시국을 박차고 일어나 하목정에서 세상을 잊고 지냈다. 평생을 명예와 권세를 피하며 구차한 벼슬살이를 기뻐하지 않았다. 옳지 않은 일을 보면 벼슬을 버리고 떠났고, 이 때문에 낙오되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예를 드날리지는 못했으나 그의 품행은 더욱 완전했다’고 밝히고 있다. 참 올곧은 선비였나 보다.

차남 지화는 만형 지영과 함께 광해군 때 증광문과에 급제한 뒤 세자시강원, 예문관검열, 봉교, 병조, 공조좌랑을 지냈다. 인조반정 후 호조와 공조정랑, 군기시첨정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묘호란 때는 의병장 장현광의 휘하에서 군량조달에 힘썼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이끌었고, 함양군수를 지낸 뒤 고향 다산으로 내려왔다.

이곳 하목정엔 이처럼 이종문 일가의 남다른 애국충정과, 깊은 학문, 올곧은 선비정신이 거친 강바람 속에서 꽃꽂하게 기다린다.

글_이현경

강 물줄기와 산세가 길게 뻗었는데
멀리 펼쳐진 들판의 아름다움 그리기도 어렵구나
새벽안개와 연기와 섞여 물가에 잠겨 있고
저녁 석양빛은 강물 위에 출렁이네
서산의 가랑비에 주름 안도 시원하고
남포 노을은 새 등에 반짝이네
애석하구나 황자안이 아무 말 남기지 않았으니
좋은 경치 감상하며 술과 벗하네

- 한음 이덕형의 시 ‘하목정’

德을 믿으십니까

조형물 이야기 : 사효자굴



칭찬과 비난의 모든 원천은 덕(德)과 악덕(惡德)의 분류에 있다고 한다. 비슬산 어귀에는 세상 모두가 칭송하던 덕의 흔적이 남아있다.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네 형제의 이야기가 담긴 '사효자굴'이 그 주인공이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사회 구성원이 되려는 새싹들은 덕을 배운다.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접하며 도덕윤리를 알아간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진 현대에는 서로간의 경계가 그리 뚜렷하지 않다. 하나의 기준에서는 덕이되, 다른 기준에서는 덕이 아닌 경우가 다반사다. 다원적 인식과 입체적 윤리관의 시대다.

성인이 군주인 나라를 이상으로 삼던 조선만큼 덕을 숭상하던 때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시절마다 급변하는 세계관을 돌이켜보면 덕의 효용성이 있을까란 의문이 일렁인다. 우리 주변에 '묻지마 범죄'와 같은 간담 서늘한 사건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만큼이나 덕에 취해있었던 중국도 사정이 달라졌다. 2015년 사업가 마윈이 '노인 도와주기 보험'을 내놓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도와주다 봉변만 당한다는 냉혹한 사회적 인식이 엮보인다. 그러나 신뢰가 보험으로 회복되는 걸까.

현대인은 서로에게 혐오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효자굴이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서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온전히 분리될 수 없음에 호혜성의 이유가 있다. 네 형제는 단지 아버지를 살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귀함을 보여줬다. 새롭게 해석하자면 전통적 효(孝)가 아니라 사람다움을 실천한 데 그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 공자의 부모다움과 자식다움을 사람다움으로 확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덕이지 싶다.

문화정책실 박현주

인문학 총서 프리뷰

달성의 나무기행



저자 _ 이정웅

우리 달성은 살아있는 생명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귀중한 나무들이 많은 곳이다. 군이 지정하고 법에 의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나무들을 보호수라고 한다. 2017년 현재 대구시의 보호수는 모두 306그루이다. 구, 군별로는 중구 5, 동구 47, 서구 1, 남구 0, 북구 20, 수성구 16, 달서구 11, 달성군은 모두 206 그루로 67%나 차지한다. 대구시 행정구역의 48%인 감안하면 적지 않는 숫자다.

그러나 이번 <달성의 나무 기행>에서는 왕버들 등 23종에, 화원 논공, 옥포권 8, 다사, 한빈권 6, 가창권 7, 현풍, 구지권 7, 유가권 8, 그루 등 모두 36그루만 살펴보았다. 시간의 제약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느티나무이거나 은행나무여서 종 다양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즉 비록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전해주는 메시지가 특이하거나 군민들과 애환을 함께한 나무를 포함시켰다. 나무는 그들이 서 있는 위치가 마을 어귀든 논, 밭두렁이든 산 속이든 한 그루의 나무가 추위와 가뭄 등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스스로의 끈질긴 생명력과 군민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글은 나무들이 땅속 깊이 뿌리박아 물을 빨아올려 삶을 유지하듯 묻혀 저 있던 이야기와 가치를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에 날려간 풍문을 모아 오늘의 시점에서 엮어내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나무와 함께하는 달성기행일 수도 있다. 즉 나무를 통해 우리고장의 잊혀 지거나 사라질 이야기들을 정리해 자랑스러운 고장 달성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2017 달성군 전국 사진 공모전 수상작

이번 공모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일반부문 총 250점, 스마트폰 부문 269점이 접수되었고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입선 총 5가지 부문으로 일반부문 36점, 스마트폰 부문 15점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문화정책실 이시영

심사위원 |

배원태(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이채근(매일신문 사진부장)

이지용(영남일보 사진부장)



☀ 금 상 | 참 곱다 _ 이동환



☼ 은 상 | 마비정 _ 김은란

☼ 은 상 |
가을 용연사 _ 박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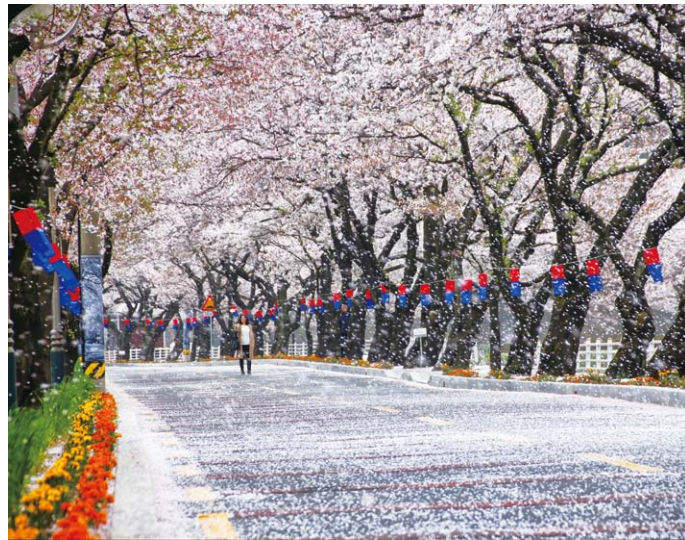


☼ 동 상 |
함께가자 디아크 _ 조일성



☼ 동 상 |
송해공원 운무 _ 최광철





가작 | 꽃눈 내리던 날 _ 강정훈



가작 | 진천천 _ 김승혁



가작 | 강정보 일몰 _ 민병도



가작 | 힘겨루기 _ 나예희



가작 | 사문진 나루터의 야경 _ 문병의



가작 | 비슬산 운해 _ 전순욱

- 입선
수상작
- 권태화 - 도동서원의 여름
 - 권태화 - 송해공원 백세정
 - 김대식 - 마비정 견학
 - 김대식 - 이팝나무숲에서
 - 김미경 - 소나기
 - 김민정 - 송해 할아버지 백세주 받으세요
 - 김범용 - 용연사의 아침빛
 - 김상아 - 재래
 - 김상아 - 동심
 - 김승혁 - 디아크-강정보 풍경
 - 김영수 - 달창지의 봄날
 - 김은란 - 비슬산 낙조
 - 김은화 - 가족 나들이
 - 김은화 - 답사
 - 김종수 - 강정보의 여름밤
 - 나예희 - 물보라
 - 나예희 - 연주
 - 민병도 - 조정경기
 - 백명옥 - 달성보 낙조
 - 여창수 - 사랑터널
 - 이원선 - 토마토 축제
 - 장익현 - 환주문
 - 정익준 - 디아크의 밤
 - 허종효 - 상성폭포
 - 허종효 - 패러글라이딩



🏆 금 상 | 100대 피아노, 사랑입니다 _ 조덕제



🥈 은 상 | 디아크의 거인 _ 김영수



🥈 은 상 | 노을의 뱃사공 _ 박지용



🥉 동 상 | 똑딱 피아노 _ 김성진



🥉 동 상 | 춘설내린 비슬산 _ 김은란



🌿 가 작 | 낙동강 현풍시내 모습 _ 김홍태



🌿 가 작 | 맛에 취하고, 흥에 취하다 _ 김후경



🌿 가 작 | 대견사3층석탑 _ 조덕제



🌿 가 작 | 송해공원의 물안개 _ 최영수



🌿 가 작 | 육신사 꽃길 _ 김영수

입선수상작

- 곽태혁 - 대견사의 연등
- 박재중 - 비슬산으로부터 나아가리
- 이연주 - 구름 빛 한옥
- 조덕제 - 비슬산일출
- 허효정 - 으랏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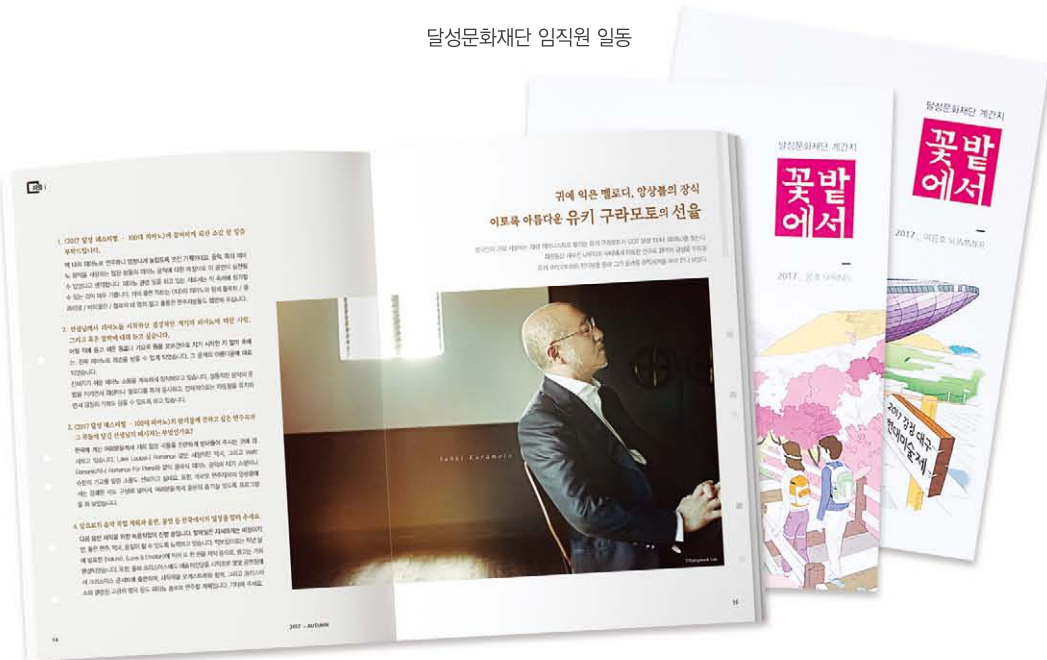


달성문화재단 계간지 꽃밭에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창간사보 부문 대상' 수상

지난해 6월 창간된 달성문화재단 계간지 '꽃밭에서'가
12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창간사보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 전국 시군군 단위 문화재단 사보 중 유일하게
달성문화재단의 꽃밭에서가 선정돼, 더욱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번 수상에서 '꽃밭에서'는 트렌드에 앞서가는 획기적인 편집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알찬 콘텐츠와 정보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문화 계간지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성문화재단 임직원 일동



2018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한국현대미술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구 유일의 대규모 야외 미술 축제!
낙동강 강정보 디아크 광장



2018 달성 100대 피아노

한국 대표 블랙버스터 피아노 축제
100대 피아노가 펼치는 그 장엄한 선율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